

#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黃渭周\*\*

## 차례

- I. 머리말
- II. 往復書翰의 實狀
- III. 往復書翰의 主要內容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퇴계와 구암이 주고받은 왕복서한을 검토한 것이다.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한은 약 140여 통으로, 퇴계의 말년 18년에 집중되었으며, 퇴계 문인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이었다. 그리고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듯한데, 후대에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는 겨우 4통만 남았다.

퇴계와 구암이 주고받은 서한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주자학 관련 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대한 협의였다. 구암은 퇴계의 의견을 자신의 서적 간행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퇴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서적을 많이 얻어 보았으며, 이것이 퇴계의 학문을 가다듬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학문탐색과 관련된 질의응답이었다. 질의응답은 구암이 간행한 주자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핵심적 내용이 성리학의 이론보다 특정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구풀이, 문맥설명, 내용해석 등에 편중된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것은 결국 구암의 학문이 이론보다 실증적 해석과 실

\* 이 논문은 2010년 3월 경남 사천시 주관 구암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용성을 추구한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론할만한 내용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 업무 처리에 대한 협의, 개인의 처신 문제에 대한 충고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구암이 생계의 측면에서도 퇴계의 든든한 후원자였음을 드러내었으며, 처신에 대한 충고는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특별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증명하였다.

#### 주제어

退溪, 龜巖, 書翰, 朱子學, 學問, 問答, 書籍

## I. 머리말

龜巖 李楨(1512~1571)은 退溪 李滉(1501~1570)보다 11세 연하의 문인으로, 퇴계 제자 가운데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퇴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도 서부경남지역 퇴계학맥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으며,<sup>1)</sup> 이 때문에 퇴계학과 내에서도 『陶山及門諸賢錄』를 편찬할 때 그를 전체 약 309명의 제자 가운데 세 번째 자리에 배치할 정도로 예우하였다.

학계에서는 龜巖이 퇴계학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이 중요한 비중을 고려하여 진작부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학문적 淵源과 標的, 退溪와 南冥과의 관계, 영남학과 내에서의 역할과 공로, 문학관과 시세계, 교육사상, 淸州獄事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며<sup>2)</sup>, 그래

1) 李晚燾는 「龜巖先生別集序」에서 구암의 德行과 文學을 孔門四科 인물에 비유하였고, 李種杞는 「龜巖先生文集重刊跋」에서 구암을 孔子 문하의 子路에 비유하였다. “惟我先君退陶夫子門下 有如龜巖李先生 其德行文學 優入四科之列者”(龜巖先生別集序), “龜巖李先生奮起南地 一躍而從之 北方之學者 莫之或先也 蓋較其年紀 如子路之於夫子 而無慚無迂 篤信而深喻之 則殆過之矣”(龜巖先生文集重刊跋)

2) 본고의 뒷면 참고문헌에 제시한 15편의 논문이 그런 것이다.

서 이제는 구암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상당한 정도까지 두루 해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퇴계와 주고받은 往復書翰 문제이다. 구암은 퇴계와 직접 만나 토론하고 또 질문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대분의 사안에 대하여 왕복서한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왕복서한 속에는 구암의 학문적 관심사와 업적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구암의 학문적 업적이나 퇴계와의 실질적 관계 등을 해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듯하다.

본고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퇴계와 구암의 왕복서한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한은 權五鳳이 편찬한 『退溪書集成』<sup>3)</sup>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문제는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양자 간에 주고받은 사연의 개략적 내용은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왕복서한의 실상을 검증한 다음, 그 주요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往復書翰의 實狀

구암이 퇴계 문하에 정식으로 입문한 것은 그가 경상도 榮州郡守로 나가 있던 중종 38년(1543년, 32세) 가을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許穆이 구암 「墓碣銘」에서 “25세에 장원급제하여 처음으로 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 6년 뒤 禮曹正郎을 거쳐 영주군수로 나갔는데, 이 때 제자

3) 權五鳳, 『退溪書集成』, 1-5책, 포항공과대학교, 1996.

의 반열을 따라 처음으로 陶山에서 퇴계선생을 뵈었다.”<sup>4)</sup>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陶山及門諸賢錄』에도 “25세에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영주군수가 되어 퇴계선생을 배알하니, 선생께서 기량이 뛰어난을 대단하게 여기셨고, 전후에 論辯함이 매우 많았다.”<sup>5)</sup> 라고 하여 이런 사실을 거듭 지적하였다.<sup>6)</sup>

그러나 실제 구암이 퇴계를 만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전인 중종28년(1533) 퇴계가 약 반년 동안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구암 역시 성균관 유생으로 있다가 館試에 합격하였고, 중종31년(1536) 퇴계가 성균관전적(6월) 호조좌랑(9월) 등에 임명되었을 때 구암 역시 수성균관전적(봄) 군기시주부(7월) 사헌부감찰(9월) 등에 임명되었으며, 중종35년(1540) 퇴계가 사간원정언(1월) 사헌부지평(4월) 형조정랑(4월) 홍문관부교리(9월) 등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구암 역시 형조정랑과 호조정랑을 거쳐 예조정랑(6월)으로 줄곧 중앙 관청에 근무하고 있었다.<sup>7)</sup>

- 
- 4) 『龜巖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33), 권2, 「墓碣銘并序」, “二十五 擢第壯元 初授成均館典籍 後六年 由禮曹正郎 出守榮川 時從弟子列 初見退溪李先生於陶山”
  - 5) 『陶山及門諸賢錄』, 권1, 李楨, “年二十五 擢第壯元 後守榮川 拜先生于陶山 先生大加器重 前後論辯甚多”
  - 6) 龜巖이 榮州郡守 시절에 퇴계 문하에 입문하였음을 지적한 예는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중종 38년(1543년, 32세) 가을 무렵이라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구암과 퇴계의 行蹟을 서로 대비해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退溪先生年譜』(西厓本)를 보면 구암이 영주군수로 부임한 중종 36년(1541) 1월부터 영주군수에서 물러난 중종 38년(1543) 12월까지 퇴계는 줄곧 弘文館修撰 世子侍講院文學 江原道災傷御使 司憲府掌令 成均館司成 등을 역임하며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종38년(1543) 10월 省墓를 위해 휴가를 얻어 고향에 왔는데, 이때는 구암이 영주군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2개월 전이었으며, 영주군수 재임 시절 퇴계를 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이런 점에서 『龜巖年譜』에 “1543년(32세) 이해 가을에 퇴계 선생을 도산에 있는 山堂에서 처음으로 만나 뵈었다. 이때 퇴계선생이 司成으로 있다가 휴가를 얻어 省墓왔을 때이다.” 라고 한 것은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라 할만하다.
  - 7) 西厓本 『退溪先生年譜』(『註解退溪先生年譜』,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2)와 鄭斗의 龜巖先生 「行狀」(龜巖先生文集, 권2)을 근거로 하였다. 이하 구체적인 관력 대비는 모두 여기에 근거하였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암이 퇴계를 만나 從遊하기 시작한 것은 퇴계 문하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10여 년 전부터라 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퇴계가 구암에 비해 나이가 대단히 많지도 않았고, 벼슬이 특별히 높지도 않았으며, 학문이 크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여서 평범한 선후배 관계 정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영주군수로 부임하여 퇴계를 정식으로 배알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듯하다. 퇴계는 이때부터 거의 모든 벼슬을 사양하면서 養眞菴 寒棲菴 등을 짓고 본격적으로 학문에 몰두하였고, 구암 역시 경상감사와의 갈등으로 선산군수 직을 그만 둔 뒤<sup>8)</sup> 고향 泗川으로 돌아가 향촌 생활을 하였고 때문이다.

그러다가 두 분이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약 10여 년이 더 지난 명종7년(1552) 무렵이었다. 명종7년 퇴계는 오랜만에 조정에 올라와 성균관대사성 벼슬을 하고 있었고, 구암 역시 부친상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성균관전직 성균관직장 성균관사성 등의 벼슬을 하였다. 동일한 관청에서 상·하급 관료로 함께 근무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구암은 퇴계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출퇴근을 언제나 같이 하였고, 함께 講席에 앉아 경전을 강론하고 유생들을 교육하였으며,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실제로 퇴계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sup>9)</sup>

이 시절 구암은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5년 전에(1547) 초년의 스승 圭庵 宋麟壽가 淸州에서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2년 전(1550)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했던 고향 선배 魚得江과 부친 李

- 8) 『龜巖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33), 권2, 鄭斗가 쓴 「行狀」, “有一民 謔告其姉 繫獄當死 先生察其冤情跡已明 方伯過聽人言 必欲置之死 反怒先生緩獄 屢拷訊刑吏 先生確然不少屈 卽日解印綬歸來 識者擬諸周濂溪置手板事云 方伯以擅棄任所 請啓准期不敘 乃丁未九月日也”
- 9) 『龜巖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33), 권1, 「祭退溪先生文」, “屈指樞衣 今二十年 牖牆警惰 提耳繩鞭 昔陪京洛 傲居一坊 出入無違 諄誨有常”. 권2, 「行狀」, “九月陞直講 又時陞司成 時退溪李先生爲大司成 先生在榮川時 曾與退溪有道義之契 及時 共處臯皮 相與講明經義 啓發諸生”

湛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반면 퇴계는 즐곧 학문에 침잠하여 이미 상당히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단양군수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며 적지 않은 제자를 두기도 하였다. 그래서 구암은 직속상관이면서 동시에 학문적 스승이기도 한 퇴계의 학덕을 실감하고 따랐으며, 이런 가운데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발전하였던 것이다.<sup>10)</sup>

구암은 성균관에 근무한지 오래지 않아서 청주목사로 부임하였고, 퇴계는 서울에 남아서 형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구암이 다시 조정에 들어와 좌부승지 형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경주부윤 순천부사 등 외직으로 나갈 때, 퇴계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산에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사실상 조정에서 같이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암은 이때부터 중요한 사안마다 언제나 퇴계의 자문을 얻고자 하였다. 퇴계와 구암의 왕복서한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산되었으며, 현존 왕복서한 역시 모두 구암이 청주목사로 부임한 명종 8년(1553) 이후에 집중되었다.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한은 『退溪書集成』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기존 목판본 『퇴계선생문집』에 수록된 內集 外集 別集과 1746년 靑壁 李守淵이 간행한 續集, 필사본 『退溪先生全書』, 『退溪先生全書遺集』, 『退陶先生集』 등을 두루 참고하여 퇴계가 쓴 각종 서한을 시기와 인물 출전 등

10) 龜巖이 退溪를 從遊함에 있어서 이 시절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은 여러 문헌에서 거듭 지적한 바 있다. 鄭斗가 구암선생 「行狀」에서 “八月授典籍 九月陞直講 又陞司成 時退溪李先生爲大司成 先生在榮川時 曾與退溪有道義之契 及時共處臯皮 相與講明經義 啓發諸生 又揭論文 敦勉崇問學勸廉恥之意焉”라고 한 것, 許穆이 구암선생 墓碣銘에서 “復居館職 陞司成 與李先生得爲長貳 於是 庠舍學士 多興於學藝”이라 한 것, 丁焞이 구암선생 「行狀略」에서 “由典籍 陞直講司成 與退溪先生爲長貳 爲諸生口講文論 不爲備員計”라고 한 것, 李家淳이 「請諡疏」(龜巖集 別集 권2)에서 “陶山之學 獨紹伊洛 咨叩洪蘊 辭明意博 長貳成均 教嚴道尊 深味奧旨 洞究微言”이라 한 것 등이 모두 그런 것이며, 이런 예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리고 趙綱은 이 시절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龜巖公 年未弱冠 師事宋圭菴 及通籍于朝 又事李先生於太學 歿身依歸”(龜巖先生文集序)라고하여 이때부터 참으로 제자가 된 것처럼 언급하기도 하였다.

에 따라 재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퇴계의 서한을 가장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참고하여 구암에게 보낸 편지만 따로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표 1〉 退溪의 答(與)李剛而書 現況<sup>11)</sup>

연도	퇴계와 구암의 주요 이력		答(與)李剛而書 상황
	퇴계	구암	
1553	在京, 성균관대사성	청주목사	答李剛而 7통
1554	在京, 형조·병조참의	청주목사	答李剛而 5통, 與李剛而3통
1555	在家, 2월 사직 귀향	청주목사	答李剛而 4통, 與李剛而1통
1556	在家	在家, 1월 목사 사직	答李剛而 3통, 與李剛而1통
1557	在家	在家	答李剛而 2통.
1558	上京(9월), 대사성	在家, 南冥과 교유	答李剛而 2통
1559	在家, 2월 휴가 귀향	在京, 6월 우부승지	答李剛而 3통.
1560	在家	대사간, 9월 경주부윤	答李剛而 6통.
1561	在家	경주부윤	答李剛而22통, 與李剛而2통
1562	在家 3월 李龜巖來謁	경주부윤	答李剛而20통, 與李剛而6통
1563	在家	1월 경주부윤 사직	答李剛而 6통, 與李剛而1통
1564	在家, 4월 遊清涼山	순천부사	答李剛而10통.
1565	在家, 景賢錄 개정	순천부사	答李剛而11통, 與李剛而1통
1566	在家, 召命 辭職 반복	순천부사, 4월 모친상	答李剛而 6통.
1567	6월 入京, 8월 歸鄉	在家, 侍墓살이	答李剛而 4통, 與李剛而3통
1568	7월 入京, 대제학	在家, 집안 비문 작성	答李剛而 5통, 與李剛而1통
1569	在家, 3월 사직 귀가	在家, 4월 淸州獄事	答李剛而 1통
1570	在家, 12월 8일 서거	在家, 1571.7월 별세	答李剛而 4통
전체 18년			전체 140통

〈표 1〉을 보면 우선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한이 명종 8년(1553)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절 퇴계는 주로 고향

11) 이 표의 주요 이력 사항은 西厓本 『退溪先生年譜』(경북대 퇴계연구소, 1992)와 李中喆이 작성한 『龜巖年譜』(泗川文化院, 2002), 鄭斗의 구암 「行狀」(龜巖先生文集, 권2, 附錄)과 丁炤의 구암 「行狀略」(龜巖先生文集, 권2, 附錄) 등을 참고하였다.

도산에서 제자들과 학문을 탐구하며 생활하였고, 구암은 지방과 중앙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다가 명종 21년(1566) 모친상을 당한 뒤로는 고향에 돌아가 생활하였다. 두 분 사이의 왕복서한은 이처럼 성균관에서 함께 근무한 다음 해부터 서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던 시절에 집중되었는데, 구암이 청주목사(20통) 경주부윤(57통) 순천부사(28통) 등 지방관으로 있을 때 작성한 것이 약 105통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나 더 거론할 가치가 있는 것은 구암에게 보낸 서한의 양적 비중 문제이다. 『퇴계서집성』을 검토해 보면 퇴계는 대략 200여 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3200여 통 정도의 서한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통에 불과한 인물이 가장 많았고, 5통 미만의 인물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10통 미만에 그친 인물이 145명으로 전체의 3/4 가량을 차지하였다. 반면 10통 이상을 보낸 인물은 도합 57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100통 이상의 서한을 보낸 인물은 구암을 포함하여 퇴계의 아들 李騫과 손자 李安道, 제자 鄭惟一 趙穆 李文樑 등 6명에 지나지 않았다.

〈표 2〉 退溪의 書翰 實狀 : 202명 3207통<sup>12)</sup>

단위	각 인물별 작성 서한 현황
100통 이상	李騫(子)552, 鄭惟一(子)168(별지30), 趙穆(士敬)156(별지5), 李文樑(大成)145, 李植(剛而)140(별지10), 李安道(孫)122. 전체 6명 1283통
50~99통	奇大升(明彦)94, 黃俊良(仲舉)87, 金兢礪(而稿)86, 李仲樑(公幹)62, 具鳳齡(景瑞)61, 李德弘(宏仲)54, 琴蘭秀(聞遠)50. 전체 7명 494통
30~49통	金富倫(惇敍)48, 金富弼(彦遇)47, 閔著元(筮卿)47, 宋麒壽(台叟)45, 禹性傳(景善)40, 琴應夾(夾之)37, 李完(姪)37, 柳雲龍(應見)36, 柳仲淹(希范)36, 李湛(仲久)35, 申運(詣仲)32, 李憑 등32, 權好文(章仲)30, 金誠一(士純)30. 전체 14명 532통

12) 이것은 권오봉의 『退溪書集成』(포항공과대학, 1996)에 수록된 서한을 인물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騫齋眞三猶子」처럼 2인 이상 인물에게 공동으로 보낸 것일 경우 제일 앞에 명시한 1인을 기준으로 삼았고, 「易東書院諸君」 「溫溪洞內」처럼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1인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서한을 보낸 구체적인 대상 인물 수는 실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위	각 인물별 작성 서한 현황
10~29통	金富儀(愼仲)27, 尹復(安東)25, 李壽 등 24, 崔德秀(子粹)23, 魚叔義(城主, 地主)22, 李瀛(四兄)22, 裴三益(汝友)19, 禹彥謙(益之)19, 孫英濟(城主)18, 鄭士誠(子明)18, 李元承(雲長)17, 烏川諸君16, 鄭琢(子精)16, 李箒(姪)16, 金鸞祥(季應)15, 金士元(景仁)15, 柳仲郢(邁遇)15, 李國弼(棗彦)15, 趙振(起伯)14, 朴承任(重甫)13, 李源(君浩)13, 金命元(應順)12, 朴承健(子悅)12, 朴雲(澤之)12, 洪仁祐(應吉)12, 朴樑(天擎, 居中)11, 許曄(太輝)11, 洪暹(判書, 贊成, 退之)11, 南彥經(時甫)10, 鄭以清(直哉)10. 전체 30명 483통
5~9통	金仲文9, 金八元(舜舉)9, 柳成龍(而見)9, 李咸亨(平叔)9, 韓脩(永叔)9, 琴軸(大任)8, 安瀚(義城)8, 吳彥毅(仁遠)8, 李珥(叔獻)8, 崔應龍(見叔)8, 具贊祿(汝膺)7, 權紹(繼叔)7, 金富仁(伯榮)7, 朴大齡(眉之)7, 安承宗(孝思)7, 洪胖7, 琴義荀(友卿)昆季6, 盧守愼(伊齋, 寡梅)6, 朴承侃(子悅)6, 申沃(啓叔)6, 李叔樑(大用)6, 李奎仁6, 鄭述(道可)6, 李澄(五兄)6, 李宗道6, 或人6, 權楸(相國)5, 權應石(景和)5, 金箕報(文卿)5, 宋遺慶5, 尹秀才5, 李憲(子修)5, 李冲姪5, 潔姪5. 전체 34명 227통
5통 미만	權大器(景受)4, 琴輔(士任)4, 金綬(綬之)4, 金明一(彦純)4, 金宇宏(敬夫)4, 柳希春(仁仲)4, 白雲書院諸生4 등. 상세 내역 생략. 전체 111명 189통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퇴계가 서한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은 아들 李騫(552통)이었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서한을 보낸 사람은 文峰 鄭惟一(168통)과 月川 趙穆(156통)이었으며, 그 다음이 바로 龜巖 李楨(140통)이었다. 왕복서한으로 유명한 奇大升(94통)은 물론이고, 黃俊良(87통) 金就礪(86통) 李仲樑(62통) 具鳳齡(61통) 李德弘(54통) 琴蘭秀(50통) 金富倫(48통) 柳雲龍(36통) 鄭士誠(18통) 鄭琢(16통) 등 유명 문인이나 학통 제자로 알려진 金誠一(30통) 柳成龍(9통) 鄭述(6통) 등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많은 서한을 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퇴계가 처음 서한을 보낸 명종 8년(1553)부터 세상을 떠난 선조 3년(1570)까지 약 18년 동안 구암과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도 퇴계의 서한 못지않게 많았음이 분명한 듯하다. 이런 사실은 퇴계가 보낸 서한 대부분이 답장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다. 앞의 표1에 잘 드러나 있듯이, 퇴계가 보낸 서한 전체 140통 가운데는 답장 형식을 명시한 「答李剛而」가 121통이나 된다.

그리고 기타 「與李剛而」 19통도 스승의 서한에 답을 하는 것이 관례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대부분 답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 역시 140통은 넘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예문을 보면 오히려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 ① 근래에 고을 사람이 가져온 서한을 받고 안부를 잘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다시 이번 달 9일에 부친 서한을 받아 보고……<sup>13)</sup>
- ②崔滉이 멀리 와서 이번 달 11일 보낸 서한을 받았고, 아울러 10일 보낸 서한이 함께 도착하여 말씀하신 뜻을 살펴 알 수 있었습니다.<sup>14)</sup>
- ③ 늦봄에 보내는 답장을 한여름에 받고 인편이 없어서 미처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승려가 서한을 가지고 와서 생활이 편안하고 좋으신 줄 알 수 있었습니다.<sup>15)</sup>
- ④ 얼마 전 樂安에서 보내주신 서한 2통과 선물을 함께 받고 대단히 감사하였는데, 이제 다시 2월 21일 보낸 서한을 받아 근래 관직에 부임한 이래 생활하는 소상한 사정을 두루 살펴 알 수 있었습니다.<sup>16)</sup>
- ⑤ 앞서 10월 4일 보낸 서한을 받고 인편이 없어서 오래 동안 답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淸州에서 서한과 別紙 몇 장을 보내오시니……<sup>17)</sup>

위의 예문은 퇴계의 서한 몇 편을 가려 그 첫머리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퇴계가 구암의 서한에 일일이 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은 여러 가지였다. 처음부터 2통을 동시에 보내 온 경우도 있고,

13) 『退溪書集成』 1545쪽, 「答李剛而」(1562), “近日獲承縣人齋來令書 承悉 不意今復奉觀 月初九日寄書 并審道主升堂稱壽……”

14) 『退溪書集成』 1676쪽, 「答李剛而」(1563), “崔滉遠來 獲承今月十一日令書 并十日書偕到 具審示意”

15) 『退溪書集成』 1677쪽, 「答李剛而」(1563), “春季辱報書 仲夏方得拜領 無便未及修復 不意白足齋書到門 獲悉令履頤閑冲勝”

16) 『退溪書集成』 1851쪽, 「答李剛而」(1564), “頃自樂安送到令翰兩封 并惠物 慰感之至 茲復承見二月二十一日書 前後具審到官以來起處之詳”

17) 『退溪書集成』 2607쪽, 「答李剛而」(1566), “前承十月初四日書 無便久闕修報 今又自晉州送傳手書及別紙數幅”

전달 과정이 지체되어 2통이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으며, 인편이 없어서 답장을 미루는 사이 새로운 서한이 온 경우도 있었다. 퇴계의 서한 중에는 이런 기록이 종종 보이는데, 이것은 구암의 서한이 퇴계가 보낸 것보다 훨씬 많았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퇴계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한은 문집을 편찬할 때 대단히 중시하는 글 양식 중 하나이다. 그 속에 일상적 안부뿐만 아니라 師友와 주고받은 학술적 토론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된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요 학자들의 문집을 보면 예외 없이 다량의 서한을 수록하고 있고, 구암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랬어야 마땅할 듯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인조 19년(1641) 발간한 『구암선생문집』 초간본 2권 1책은 서한을 1편도 수록하지 않았고, 영조 25년(1749) 『續集』 2권 1책을 발간할 때도 宋寅에게 보낸 「與宋頤庵」 1통만 겨우 수록하였으며, 1902년 『別集』 2권 1책을 발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광범위한 수집 과정을 거쳤지만<sup>18)</sup>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

- ① 上退溪先生問目(朱書) ○庚申(1560)  
1560년 答李剛而問目(朱書) 제25-26항 (집성3-1151)  
1561년 答李剛而問目(朱書) 보충 제5항 (집성3-1326)  
1561년 答李剛而問目(朱書) 제6항 (집성3-1306)
- ② 上退溪先生問目 ○丙寅(1566)  
구암 문목 1통, 퇴계 답장 1통. 『퇴계서집성』에서 미확인  
집성 4-2600에 바로 직전 퇴계의 喪禮問目 답서 있음.
- ③ 上退溪先生 ○庚午(1570) ○手本出陶山書院光明室  
구암 서한 1통. 현존 『퇴계서집성』에서 미확인
- ④ 附答目

18) 李晚燾, 「龜巖先生別集序」, “如有零言片簡之可以傳信者 哀爲別集 亦無未安也 所以後孫泰煥 洪翼 柳君震台 崔君柄敏 鏞敏等 廣搜博採 得詩一書九跋三 書多上師門問目 而自陶山全書中收錄者 爲居半焉”

- 제 1-24항 : 1560년 答李剛而問目(朱書) 제1-24항 (집성 3-1151)  
 제25-29항 : 1561년 答李剛而問目(朱書) 제1, 3, 5, 7, 11항 (집성 3-1306)  
 제30-42항 : 1561년 答李剛而問目(朱書) 제1-11, 제15항 (집성3-1326)  
 제43항 : 1561년 答李剛而 別紙 전체 (3-1337)  
 제44-46항 : 1562년 答李剛而問目 제1, 제4, 제5항 (집성3-1512)  
 제47항 : 1562년 答李剛而 別紙 제1항 (집성 3-1517)  
 제48항 : 1566년 答李剛而問目(喪禮)○丙寅 제1항 (집성4-2596)  
 제49-54항 : 1566년 答李剛而 別紙 제2-5, 제11-12항 (집성4-2600)  
 제55항 : 1560년 答李剛而問目(朱書) 보충 제2항 (집성3-1151)  
 제56-59항 : 1561년 答李剛而問目(朱書) 보충 제4-7항 (집성3-1306)  
 제60-61항 : 1561년 答李剛而問目(朱書) 보충 제12, 제14항 (집성3-1326)  
 제62-63항 : 1562년 答李剛而問目 제8, 제10항 (집성3-1512)  
 제64-65항 : 1565년 答李剛而 別紙 보충 제1-2항 (집성4-2183)  
 제66-67항 : 1566년 무렵으로 보이거나 현존 『퇴계서집성』에서 미확인

⑤ 答許耆卿

⑥ 與金(字卿未詳) ○ 乙丑(1565)

위는 『구암선생별집』의 서한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이 가운데 퇴계에게 보냈다는 서한을 『퇴계서집성』과 정밀하게 대비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구암선생별집』 역시 근본적으로 서한을 수집하는데 큰 성과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찾아낸 인물이 퇴계와 許耆卿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씨 등 고작 3인에 불과하였고, 19) 퇴계 관련 서한도 ①~④의 4종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실상 대부분 『퇴계집』을 불완전하게 옮겨놓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①은 퇴계가 1560년 작성한 「答李剛而問目」, 마지막 제25~26항

19) 「答許耆卿」과 「與金」 2통은 안동 의성김씨 집안에서 찾은 듯하다. 이것은 李種杞가 쓴 『龜巖先生文集重刊跋』에 “後孫又得遺編於川上金氏家 仍以活字附其後”라는 기록이 있다.

과 1561년에 작성한 「答李剛而問目」 보충 부분 제5항, 그리고 같은 해 보낸 또 다른 「答李剛而問目」 중간 제6항을 뽑아 재편집한 것인데, 전체 34항 가운데 구암의 글은 7항뿐이고 나머지 27항이 모두 퇴계의 답문 내용이다. ②는 『退溪全書』에서 찾아낸 것인데<sup>20)</sup>, 전체 81항 가운데 39항이 퇴계의 답문이었고, ④는 퇴계가 1560년부터 1566년까지 보낸 서한 약 10여 통 가운데서 67개 항을 임의로 뽑아놓은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퇴계의 글이다.<sup>21)</sup> 그러니까 『구암선생별집』에 수록한 퇴계 관련 서한 4종 가운데 구암의 서한으로 온전한 것은 ②의 앞부분 약 42행 질문 부분과 도산서원 광명실에서 찾았다는 ③ 정도가<sup>22)</sup> 전부인 셈이다.

이처럼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은 3차례에 걸친 문집 편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으며,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망실되었다. 이렇게 된 일차적 이유는 아마 임진왜란이란 큰 난리를 겪은데 있는 듯하다. 선조 4년(1571) 구암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구암이 활동했던 진주 사천 지역이 대표적 격전지였으며, 『구암집』 서문이나 발문을 쓴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를 가장 중요한 망실 원인으로 지목하였기 때문이다.<sup>23)</sup> 그리고 인조 19년(1641) 龜溪書院에서 간행한 문집 초간본이 고작 2권 1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전쟁 중에 서한은 물론 遺稿 전체가 크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 제목 「上退溪先生問目」 아래 부분에 “見退溪全書”라는 기록이 있다.

21) ④ 附錄 앞부분에 “按退溪集中 答先生問目者許多 其必逐條有問 而皆逸不傳 今就溪集中 摭其可證數條如右 其餘則只附答目于下”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22) 제목 「上退溪先生」 아래 부분에 “手本出陶山書院光明室”이라는 기록이 있다.

23) 趙綱, 「龜巖先生文集序」, “既已俎豆公於塾序 又哀集遺稿於兵燹之餘”. 許穆, 「龜巖先生文集跋」, “今其遺稿殘缺 而幸傳於兵亂散失之餘 僅十存二三”. 魚有成, 「龜巖先生文集續集跋」, “噫 樹立既如是卓然 文詞又如是雄渾 而著述之行於世者 若是零瑣 則其散失殘缺於兵燹之餘者 又不知其幾許篇 其可慨也已”. 李晚燾, 「龜巖先生文集序」, “原集續集兩卷 甚零星 不唯先生所著龜巖日課不載 凡與師門往復 宜近百度 而無一篇槩見 此不但兵燹之厄 無乃倚靠之有地 而初不收拾而致然乎”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서한의 경우 보낸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집안에 보관된 것이 보통이고, 구암의 서한을 받은 사람도 경향 각지에 두루 산재해 있었을 듯한데, 이런 서한들이 하나같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어떤 곡절이 있었을 듯한데,<sup>24)</sup>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퇴계의 서한을 통해 왕복서한의 내용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Ⅲ. 往復書翰의 主要內容

李晩燾는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100통 가까운 서한을 『구암집』에 수록하지 못한 이유가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 믿을 데가 있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한 바 있다.<sup>25)</sup> 구암이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이 퇴계의 서한 속에 함께 들어있어서 이를 믿고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사실 여부가 알 길이 없지만, 퇴계의 서한이 왕복서한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일별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적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과 간행에 관련된 문제의 의논이다. 鄭斗는 구암이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퇴계와 의논하여 중국 性理書 가운데 미처 간

24) 구암이 세상을 떠난 1571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사이 어떤 시점에 문집 편찬을 위해 미리 원고를 수습했다가 전쟁 화재 등 비상한 일로 이를 한꺼번에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25) 李晩燾, 「龜巖先生別集序」, “原集續集兩卷甚零星 不唯先生所著龜巖日課不載 凡與師門往復 宜近百度 而無一篇槩見 此不但兵燹之厄 無乃倚靠之有地 而初不收拾而致然乎”

행되지 못한 책들을 간행한 것을 주요 공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朱子詩集』 『延平答問』 『伊洛淵源續錄』 등 약 14종의 책을 거명하였는데,<sup>26)</sup> 이런 책들의 송부와 수령, 교감과 간행, 서발문의 작성과 수정 배포 등에 관련된 사항이 왕복서한에서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 예를 보자.

① 朱子詩集 관련

- 2-0306(1553) : 晦菴感興詩覺軒註 雲谷等詩 序跋文 찬자 추천.  
雲谷26詠 城南雜詠20수 합간 가능 여부 질의.
- 2-0305(1553) : 新刊晦菴諸詩(感興詩蔡註 棹歌註解) 송부 감사.  
雲谷詩 城南詩 등을 적어 보냄
- 2-0464(1555) : 朱子 西林感慨詩를 별폭에 적어 보냄.
- 2-0465(1555) : 棹歌註 저자 陳普 이름자 판정. 풀이라 함.
- 2-0467(1555) : 棹歌註 송부 감사. 이름자 소견 플로 변경.
- 2-0468(1555) : 棹歌善本 송부 감사. 正誤本 改刊 축하.  
陳普의 호 懼齋의懼자 판독 견해.
- 3-1316(1561) : 朱子の 5언시 8絶을 써 보냄.
- 3-1538(1562) : 晦菴詩帖跋 초고는 인편이 없어 못 보냄.
- 3-1540(1562) : 晦菴詩帖跋을 지어 보냄.

② 延平答問 관련

- 2-0388(1554) : 연평답문 開刊 축하. 跋文 부탁은 사양.
- 2-0390(1554) : 연평답문 開刊과 跋文 청탁 원료 여부 질문.
- 2-0384(1554) : 연평답문 跋文을 누차 사양하다 초고 보냄.  
冊主 南彦經에게도 한 본 보내도록 권유.

26) 鄭斗, 「行狀」(龜巖集 권2), “中朝性理之書 或有未盡刊行於吾東者 亦與退溪往復訂定 相與跋之 如孔子通紀 程氏遺書外書 伊洛淵源續錄 增刪濂洛風雅 擊壤集 延平答問 朱子詩集(雲谷徹音詩?) 范太史唐鑑 丘瓊山家禮儀節 薛文清讀書錄 胡敬齋居業錄 皇明名臣言行錄 理學錄 醫無閔先生集等書 入梓於所歷州府”. 李家淳이 구암의 謚號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請謚疏」(龜巖集 別集 권2)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다.

- 2-0386(1554) : 연평답문 跋文을 보냈다고 함.
- 2-0390(1554) : 小識와 跋文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 알려 줌.
- 2-0391(1554) : 연평답문 간행 완료 축하. 跋文 작성해 보냄.
- 2-0392(1554) : 연평답문 송부 감사. 남언경에게 송부 당부
- 2-0464(1555) : 연평답문서 '竿木隨身'의 의미 토론  
연평답문서를 죽계 임고서원에 전달할 방법.

③ 伊洛淵源續錄 관련

- 3-1305(1561) : 이락연원속록은 교감 후 보내겠다.
- 3-1338(1561) : 이락연원속록을 교감해 보냄. 의문사항 적시.
- 3-1543(1562) : 이락연원속록의 오류 문제 거론.
- 3-1548(1562) : 淵源錄前後集 간행 소식. 跋文 부탁 재고.
- 4-2202(1565) : 續伊洛錄 간행, 발문은 다음에 답하겠다.

④ 二程粹言 관련

- 3-1305(1561) : 二程粹言을 대강 교감하여 보냄.
- 3-1349(1561) : 傳道粹言을 받았음. 검토하겠다.
- 3-1521(1562) : 新刊書4건 송부 감사. 傳道粹言跋 수정 요망
- 3-1522(1562) : 傳道粹言 再刊 方法 있다 하여 수정분 송부.

⑤ 文公年譜 관련

- 3-1540(1562) : 文公年譜를 못 보낸다고 함.
- 3-1545(1562) : 文公年譜는 다음에 보내주겠다.
- 3-1525(1562) : 文公年譜를 되돌려 준다.
- 3-1674(1563) : 晦菴年譜를 수소문한 사정.
- 3-1677(1563) : 年譜는 분실한듯하니 유의하시라.
- 3-1679(1563) : 주자연보를 잃지는 않았을 듯.
- 3-1862(1564) : 朱子年譜는 公幹에게 부탁했으나 연락 없음.
- 3-1852(1564) : 年譜를 찾았다 하니 다행이다.
- 4-2198(1565) : 新舊年譜2건과 傳疑1책을 수령하였음.
- 4-2200(1565) : 전에 받은 年譜의 교감 완료와 그 소감.
- 4-2205(1565) : 年譜 新刊 격려, 착오 많으니 改正하라 함.



- 4-2596(1566) : 文公年譜는 裒三益에게 교감 부탁하였음.
- 4-2885(1567) : 순천에서 부처 온 梁山本 文公年譜 1책 보냄.  
1, 3차(퇴계) 2차(배삼익) 교감사항 적어 보냄.

⑥ 景賢錄 관련

- 4-2183(1565) : 景賢錄 교감 예정, 간행 말고 기다리라.
- 4-2191(1565) : 景賢錄 교감 진행 상황. 家範 작자 논의.
- 4-2194(1565) : 景賢錄 수록 글 풀이와 편집 방안 등 5조목.
- 4-2198(1565) : 景賢錄 凡例 표현 편집 등에 의견 제시.
- 4-2200(1565) : 景賢錄 교감 편집 의견. 이전 경현록 반납.
- 4-2202(1565) : 4-2191을 景賢錄 凡例로 삼자는 견해 거절.
- 4-2204(1565) : 金先生行跡은 鄭崑壽草本 보고 교감하러 함.
- 4-2207(1566) : 家範의 편집 문제. 金先生實記 구입 부탁.

위의 ①~⑥은 퇴계가 보낸 서한 가운데 청주목사 시절 간행한 『朱子詩集』과 『延平答問』, 경주부윤 시절에 간행한 『伊洛淵源續錄』과 『二程粹言』, 순천부사 시절에 간행한 『文公年譜』와 『景賢錄』 등에 관련된 사항만 따로 가려내어 정리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퇴계와 구암의 왕복서한에서 서적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간행 관련 사항의 협의 내용이 대단히 많고 다양하였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신간 서적을 받은 뒤 축하나 감사의 인사를 한 경우도 있고, 수정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으며, 간행 상의 문제점이나 편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경우도 있고, 교감의 진행 상황과 결과 통보, 서발문의 작성 요청과 수락 혹은 거절, 참고서적의 수수 과정에 발생한 분실 문제, 기타 간행 물의 반질 방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항을 논의하였다.

왕복서한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서적은 위에 제시한 6종을 포함하여 『啓蒙傳疑』, 『朱子大全』, 『程氏遺書外書』, 『朱子書節要』, 『唐鑑』, 『濂洛風雅』, 『皇明名臣言行錄』, 『蒙記』, 『薛公讀書錄』, 『皇極內篇』, 『南嶽唱酬集』, 『理學

錄』, 『醫問集』 등 약 19종 정도였다.<sup>27)</sup>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서한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도 전체 140통의 절반가량인 약 71통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주자학 관련 서적에 대한 정보 교환과 간행 보급 문제에 대한 협의가 두 분의 왕복서한에서 가장 중심적 내용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왕복서한에서 의논한 사항이 구암의 공부나 서적 간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구암은 이를 통해 『朱子大全』 『書類』<sup>28)</sup> 『啓蒙傳疑』 같은 방대한 자료를 빌려볼 수 있었고, 간행 대상 서적의 善本 자료와 교감 발문 등을 받을 수 있었으며, 퇴계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수정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아예 앞서 간행한 책을 헐어버리고 다시 간행하기까지 하였다. 청주목사 시절에 간행한 『文公朱先生感興詩』가 바로 그런 예이다.

구암은 청주목사로 있을 때 조선 초기 활자본 『朱子感興詩註解』에 「擬古八首」, 「雲谷雜詩」, 「武夷雜詠棹歌十絶」 등을 추가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바 있다.<sup>29)</sup> 그리고 이 책을 퇴계에게 보냈더니, 퇴계는 주자의 「雲谷雜詠」 26수와 張栻의 「城南雜詠」 20수 등을 수록하지 않은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시

27) 『啓蒙傳疑』는 『退溪書集成』, 1549, 1676, 1677, 1678, 2181, 2188, 2198, 2204, 2205, 2886, 2888, 2890, 3135, 3141, 3512, 3830, 3831 등 17통의 서한에서, 『朱子大全』은 767, 1149, 1339, 1349, 1540, 1548, 1676 등 7통의 서한에서, 『程氏遺書外書』는 686, 687, 1853, 1857, 1863 등 5통의 서한에서, 『朱子書節要』는 1168, 1149, 1347, 1348 등 4통의 서한에서, 『唐鑑』은 1509, 1538, 1540 등 3통의 서한에서, 기타 『濂洛風雅』는 2181과 2184의 서한에서, 『皇明名臣言行錄』은 1509와 1511의 서한에서, 『蒙記』는 1544, 『薛公讀書錄』은 304, 『皇極內篇』은 1526, 『南岳唱酬集』은 1526, 『理學錄』은 2181, 『醫問集』은 1509의 서한에서 각각 거론되었다.

28) 『退溪書集成』, 3-1149, 「答李剛而」, “大全書十八冊 姑先上呈 書類四十餘冊 則黃仲舉欲印前所抄節 必須再經校閱而後可印 元本不可無之 故今未上 一 二 朔校畢 當送”, 3-1548, 「答李剛而」, “朱子大全書未往者二十卷 付來使送上 伏惟令鑑”

29) 『龜巖集』 권1, 「감흥시발(感興詩跋)」, “初得鑄字本感興詩註解 入板訖 添錄擬古八首 雲谷雜詩 武夷雜詠棹歌十絶 又收入濯清一絶於漁艇詩之下棹歌詩之上 哀集爲一編 既印 敬稟于退溪先生”

간행할 필요가 있다고 완곡하게 지적하였다.<sup>30)</sup> 그리고 그 다음 편지에서 구암의 요청에 따라 이들 작품 52수를 別紙에 적어 보내냈으며, 이를 종합하여 합본으로 간행해야 하는 이유, 합본을 간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편집 방법, 기타 각종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거론하였다.

- ① 「운곡잡영」은 26수인데 12수만 취해서는 未備하다.
- ② 「탁청」 시는 「성남잡영」 20수 중 한 수인데, 1수만 실어 아쉽다<sup>31)</sup>
- ③ 합본을 계산해 적었으니 그대로 판각하면 효율적인 것이다.
- ④ 합본의 공란을 매우도록 「宿休庵」 읍시 1수는 보완한다.
- ⑤ 「탁청」 시는 「성남잡영」 20수 중 한 수인데 이를 「무이잡영」 끝에 편집하여 오해 여지가 있다. 그 자리에 「武夷洞天」 시를 보완하면 좋겠다.
- ⑥ 활자본의 변경량 발문 1장은 없애는 것이 어떻겠나?
- ⑦ 발문 끝 「君子云吁謹識」는 「博學君子改正云 某謹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sup>32)</sup>

라고 한 것이 다 그런 예이다. 구암은 퇴계의 이런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城南二十詠」, 「百丈山六詠」, 「雲谷二十六詠」 등 52수와 「宿休庵」 1수를 기존 간행본의 「擬古八首」와 「雲谷雜詩」 사이에 보완해 넣었다. 그리

30) 『退溪書集成』, 2-0306, 「答李剛而」, “所取諸詩固佳 其雲谷二十六絕 奉同張敬夫城南雜詠二十首 亦甚佳 未可并取刻否 若卷帙已定難可 則不須強耳”

31) 『退溪書集成』, 2-0305, 「答李剛而」, “淸前所以欲添入雲谷城南諸詠者 ①以雲谷只取十二首 而遺二十六詠爲未備 ②又濯淸乃城南二十詠之一 取一而遺十九 亦可惜 故敢白 而未及於事爲可恨耳”

32) 『龜巖集』 권1, 「附退溪先生書」, “右城南二十詠 百丈山六詠 雲谷二十六詠 共五十二首 與新刊增錄武夷雜詩等作 辭旨理趣俱同....鄙意以大州事力苟欲改圖 不過四五板工夫 何患難改 ③恐必以新舊刻相接處排行難適爲難 故如右計行排書而送 ④其宿休庵一律 所以補三行之闕者耳 如無他難事 須依此改刊何如 若刊此五板 其餘則只改張數一二字而仍用之 功費不多而書可爲完書 豈不好哉 ⑤且濯淸一絕 本城南二十詠之一 而今編在武夷之末 使初見者 誤認爲武夷之詩 亦爲未穩 須去之 以置城南詩中 而取武夷洞天一絕 填刻其空處 則庶兩詩皆從其類 無乃恰好乎 ⑥鑄字跋一張 亦不須并刻 鄙意亦去之何如 ⑦卷末自題識之末 君子云吁謹識 此處雖無大害 然語勢少似局促 淸意欲改曰 博學君子改正云 而去一吁字 直書公姓名曰某 謹識 如此則無病矣 如何”

고 「武夷洞天」 절구 1수를 「漁艇」 시와 「棹歌」 시 사이에 보완하는 대신 그 자리에 있던 「濯淸」 절구 1수를 삭제하였으며, 활자본에 있던 변계량의 발문을 빼고, 구암 자신이 쓴 발문의 마지막 문구까지 모두 퇴계의 견해대로 수정하였다.<sup>33)</sup> 『文公朱先生感興詩』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간행되었는데, 이 한 사례만 가지고도 왕복서한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암의 공부와 서적 간행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나 더 거론할 필요가 있는 것은 퇴계 역시 구암과의 왕복서한을 통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퇴계는 구암을 통해 이전에 보지 못한 많은 책들을 얻어 볼 수 있었다. 薛居仁의 『讀書錄』<sup>34)</sup>, 蔡模의 「感興詩」 주석<sup>35)</sup>, 陳普의 『棹歌註解』<sup>36)</sup>, 胡居仁의 『居業錄』, 二程의 『程氏遺書外書』<sup>37)</sup>, 許衡의 『稽古千文』<sup>38)</sup>, 金履祥의 『增刪濂洛風雅』<sup>39)</sup> 등이 다 그런 책들이다. 그리고 『도가주』의 작자를 당초 陳晉이라 했다가 陳普로 고치고,<sup>40)</sup> 『舉幡報

33) 『龜巖集』 권1, 「감흥시발(感興詩跋)」, “謹依指教 補入城南二十詠 百丈山六詠 雲谷二十六詠 共五十二首及宿休庵一律于擬古第八章雲谷第一詠之間 又填刻洞天一絕於漁艇棹歌兩詩之中 而刊去濯淸一絕 使各從其類 并刪其感興詩後卞春亭鑄字跋而去之 凡添補刪去 一依先生手教 分行排字 刊成編帙 以畢先生之志 後之讀者 無有感於是編者乎 嘉靖甲寅龜巖居士李楨謹識”

34) 『退溪書集成』, 2-0304, 「答李剛而」, “薛公讀書錄 非因知傳習之比 其言皆親切有味 最多喚醒人處 偶因洪應吉 聞貴府有刊本 前敢冒叩 卽此垂寄 使衰懦者有所策勵 公之惠我周行至矣”

35) 『退溪書集成』, 2-0306, 「答李剛而」, “示諭晦菴感興詩覺軒註 未曾見之 并雲谷等詩一帙 刊行 則庶可得見 何幸如之”, 2-0305, 「答李剛而」, “感興詩蔡註 曾所未覩 棹歌註解 近方聞有之 渴欲得見 今合爲一冊 忽墮塵凡 如見古人 接緒言於千載之上 感幸尤深”

36) 『退溪書集成』, 2-0467, 「答李剛而」, “蒙寄示棹歌註刊印一本 遠記至此 珍重阮誦 極爲感荷 懼齋爲此註 雖未知正得先生本義 亦可以助發趣旨 誠不可無也”

37) 『退溪書集成』, 2-0467, 「答李剛而」, “居業錄外 如魯齋論遺書外書分類 皆所無者 如蒙印寄 幸亦大矣”

38) 『退溪書集成』, 2-0467, 「答李剛而」, “示諭許魯齋千文 未曾得見”

39) 『退溪書集成』, 4-2181, 「答李剛而」, “又此尋問 并致濂洛風雅寒暄事編等二書三冊 承領以還 無任欣浣之至……濂洛風雅 得未曾見 深以荷幸”

40) 『退溪書集成』, 2-0465, 「答李剛而」, “晉普之別 以德施普等語推之 兩皆有義 似難取捨 前與景說所議 亦如此 其所以以晉爲定者 晉有進義 於尙德爲親切 不似普字之泛泛故耳 於

德'을 태학생 何蕃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 했다가 나중에 한나라 鮑宣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수정하는<sup>41)</sup> 등 실제 자신의 견해를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복서한이 구암에게는 물론 퇴계 자신의 공부에도 실제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왕복서한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학문탐색과 관련된 질의의 답변이다. 이런 내용의 서한은 수량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한 통에 적게는 몇 가지부터 많게는 수 십 가지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담았고, 이를 別紙 형태로 길게 작성해 보낸 것이 일반적이어서, 분량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서한은 대략 24통 정도 되는데, 별지 형태가 약 19통, 본서 형태가 약 5통이었다. 그러나 별지 8통은 보냈다는 기록만 있을 뿐 글이 남아 있지 않다.<sup>42)</sup> 그래서 실제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것은 별지 형태 11통, 본서 형태 5통, 도합 16통인데, 그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1151(1560) : 朱書問目 답변. 본문 24항, 보충 11항, 전체 35항
- 3-1306(1561) : 朱書問目 답변. 본문 11항, 보충 13항, 전체 24항
- 3-1326(1561) : 朱書問目 답변. 본문 14항, 보충 27항, 전체 41항
- 3-1512(1562) : 經書(書·學) 답변. 본문 6항, 보충 12항, 전체 18항
- 3-1518(1562) : 心經問目 답변. 본문 3항, 보충 1항, 전체 4항
- 3-1523(1562) : 朱書의 舉幡報德 등 고사 풀이 문제에 대한 답변

盛意何如”, 2-0468, 「答李剛而」, “至晉普兩字之於尙德之義 以自昭明德等之義推之 亦疑晉字爲長也”, 2-0467, 「答李剛而」, “普字 反覆思之 似當以德施普之義 作普爲是 俟得本集 不遺諱及 則又幸之幸也”

- 41) 처음에는 「祭何叔京文」의 舉幡報德 고사 풀이를 “幡 以布帛繫竿 舉以令衆之物 此疑用韓文太學生何蕃故事”(3-1512, 答李剛而問目 보충5)라고 했다가 그 뒤 다시 “前報 舉幡報德 以爲用何蕃事者 妄也 更考 漢哀帝將 殺鮑宣 其門人舉幡曰 欲救鮑司隸者集此下集者千餘人 何叔京父兌明 其師馬仲 爭立張邦昌事 秦檜怒斥死 故此用其事云耳”라고 수정하였다.
- 42) 『退溪書集成』 1542, 1543, 1544, 1544, 1674, 1678, 2183, 2198 등에 수록된 서한이 그런 것이다. 이런 서한은 그 속에 別紙를 보냈다고 명시하였는데, 실제 별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3-1528(1562) : 각종 問目 답변. 본문10항, 보충 12항, 전체 22항  
 4-2180(1565) : 墓祭 忌祭 時祭 등 設行方法 답변  
 4-2184(1565) : 濂洛風雅 문목 답변. 본문6항, 보충10항, 전체 16항  
 4-2188(1565) : 訓蒙詩 작자 등 文目 답변. 본문 5항, 보충 2항, 전체 7항  
 4-2191(1565) : 景賢錄 수록 시 등에 대한 問目에 답변. 본문 5항  
 4-2200(1565) : 中庸輯略27章 諸儒說에 대한 견해,  
 4-2205(1565) : 朱書 主靜 등 질문에 답변  
 4-2596(1566) : 喪禮問目에 답변. 본문 2항.  
 4-2600(1566) : 喪禮問目에 답변. 본문 9항, 보충 5항, 전체 14항  
 5-3829(1570) : 語錄 중 七情所發과 所屬의 異同 문제에 답변

위에 제시한 내역을 검토해보면 두 분의 핵심적 토론 대상이 바로 朱書였음을 알 수가 있다. 3통의 별지와 2통의 본서에서 약 102개 항목에 달하는 사항을 문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書經』 『大學』 『中庸』 등 경서가 19항목, 喪禮 祭禮가 18항목, 『濂洛風雅』가 16항목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景賢錄』(5항목), 『心經』(4항목) 등이 두루 토론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晦菴集』 『傳道粹言』 『言行錄』 등도 모두 토론 대상이 되었는데,<sup>43)</sup> 이것은 주자학 관련 서적, 특히 구암이 간행 보급 대상으로 삼은 몇몇 주요 서적이 가장 중심적 토론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토론의 내용이다.

- ① “無麵之不托 喫大椀不托. 살펴보건대, 不托(수제비)은 혹 飪飪(박탁)이라고도 하니, 음식물 이름이다. 麵은 밀가루이니, 곧 그것으로 불탁을 만든다. 救荒 때 요청하는 廣糶米 賞納穀 등 일을 재상이 일체 들어주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길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비록 구황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음을 말하니, 바로 밀가루가 없어서 불탁을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음이다. 그러므로 ‘某는 밀가루 없이 불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44)</sup>

43) 『退溪書集成』 3-1528에서 문답한 22개 항목이 대부분 이런 것으로 파악된다.

- ② “范念德에게 답한 서한에서 ‘近覺此事 全在底下’의 ‘此事’는 학문하는 일이고, ‘底下’는 도리의 근본이 되는 낮고 평범한 데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학문을 함에 마땅히 근본이 되는 낮고 평범한 데 진심하여 공부를 해야 좋다. 張欽夫가 학문을 논한 것처럼 하면 오히려 고상함을 좋아하고 상심하고 유쾌해 하는 데서 잘못될 것이니, 이런 병통을 몰라서는 안 된다”<sup>45)</sup>

1561년 구암은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別紙를 보내 『朱書』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퇴계는 이 때 1차에 약 24개 항목, 2차에 약 41개 항목의 답을 하였는데, 위의 ①과 ②는 1차와 2차 답장에서 각각 하나씩 뽑은 것이다. 두 글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구암과 퇴계의 문답 내용은 순수한 성리학적인 이론 문제가 아니었다. 朱子 편지에 기록된 ① 無麵之不托 ② ‘近覺此事全在底下’와 같은 문구의 정확한 의미 해석 문제였다. 그래서 퇴계는 어구풀이 차원의 의미와 그것이 환기하는 속뜻을 함께 설명하였는데, 왕복서한에 나타나는 학문적 토론은 대부분 이와 같은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런 사정은 『書經』 『大學』 『中庸』 『心經』 『濂洛風雅』 『景賢錄』 등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였다.

- ① 鄱陽湖의 鄱는 물 이름으로, 음이 ‘婆’이다. 자획을 줄여 番이라고 썼을 뿐이고, 달리 番陽이란 곳이 있지 않으니, 음이 ‘과’임을 어찌 의심하리오. 番易은 바로 鄱陽이니, 易은 곧 陽 자의 古字이다. 鄱陽은 곧 豫章縣이니, 지금의 饒州이다.<sup>46)</sup>

44) 『退溪書集成』 3-1306, 「答李剛而問目」 朱書, 제2항, “無麵之不托 粿大碗不托 按不托或作飢飢 食物名 麵即麥末 即所以爲不托者也 言荒政所請廣糶米賞納穀等事 宰相一切不聽 則米穀無從而得之 既無米穀 雖欲救荒 不可得也 正無麵末 而欲爲不托 不可得也 故云某不能爲無麵之不托”

45) 『退溪書集成』 3-1326, 「答李剛而問目」 朱書, 제4항, “答范伯崇書 近覺此事全在底下 此事 爲學之事也 底下 指道理根本低平處言 言爲學 當專就根本低平處 做將去乃善 若欽夫之論學 猶失於好高傷快處 此病不可不知也”

46) 『退溪書集成』 3-1512, 「答李剛而問目」, 제2항, “鄱陽湖鄱 水名 音婆 字省作番耳 非別有番陽也 音之爲婆何疑 番易即鄱陽也 易古陽字也 鄱陽即豫章縣 今饒州也”

- ② 『心經附註』 서문의 ‘圖眞心于聖經賢傳之中’에서 이른바 聖經賢傳은 심경에 인용한 經傳을 가리키고, 圖眞心은 ‘이 경전의 格言과 至論에 마음을 두게 할 셈’이었음을 말한 것일 뿐이니,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sup>47)</sup>
- ③ 『濂洛風雅』 延平詩 주석에 나오는 ‘建中七友’의 ‘七’ 자는 ‘士’ 자의 오자라고 해야 마땅하다. 閩중에 建州가 있기 때문에 또한 建中이라고도 하였으니, 王文憲이 金華 사람으로 建中 친구에게서 이 시를 얻었기 때문에 ‘建中士友’라고 하였다.<sup>48)</sup>
- ④ 估畢齋 시는 생각건대 “불행하게도 분에 맞지 않은 벼슬을 하여 갑자기 경대부에 이르니, 그 바로잡고 구체하는 일과 도를 시행할 책임을 내 어찌 감당할 수 있으리오? 나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으니, 그대 같은 후배가 조롱하고 비웃음이 참 마땅하도다. 그러나 권세를 타고 이익을 추구하여 나아가 빼앗기를 도모함에 연연하는 일은 내 또한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sup>49)</sup>

위의 ①은 『書經』 「禹貢」 편 ‘彭蠡既豬’ 註釋에 나오는 ‘鄱陽湖’와 그 생략 형태인 ‘番易’의 상호관계와 발음 문제를 다룬 것이고, ②는 程敏政이 쓴 『心經』 서문 끝부분의 ‘聖經賢傳’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圖眞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다. ③은 『濂洛風雅』에 수록된 延平 李侗의 시 주석 가운데 ‘建中七友’의 ‘七’ 자가 ‘士’ 자의 오자임을 밝힌 것이고, ④는 『景賢錄』에 수록된 점필재 김종직이 제자 金宏弼에게 보낸 시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이처럼 구암과 퇴계의 학문 탐색에 관련된 질의 답변 내용은 거의 대부분 특정 서적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구풀이, 문맥설명, 내용해석 등

47) 『退溪書集成』 3-1518, 「別紙」 제1항, “心經註序 圖眞心于聖經賢傳之中 所謂聖經賢傳指心經所引諸經傳也 圖眞心 謂計欲存心於此經傳格言至論中云耳 恐非有他義也”

48) 『退溪書集成』 4-2184, 「別紙」, 제1항, “濂洛風雅延平詩註 建中七友 此七字 當是士字之誤 閩中有建州 故亦謂之建中 王文憲 金華人 而得此詩於建中友人處 故云建中士友”

49) 『退溪書集成』 4-2194, 「別紙」, 제2항, “估畢詩 意謂不幸而非分仕宦 忽至卿大夫 其於匡救之事 行道之責 我何能任之 我之迂拙如此 後輩如君之嘲笑 固其宜也 然區區於乘勢射利 以圖進取之事 則吾亦不爲之耳”



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理氣 性情 四端 七情 등과 같은 추상적 문제는 어느 하나도 중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구암의 학문이 이론지향성보다 실증지향성이 강하였으며, 학문적 검토 결과를 자신의 서적 간행에 바로 연결시키는 강한 현실성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타 왕복서한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서한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안부, 집안 사정과 생활 형편, 만남의 약속과 실천, 관직의 진퇴 문제와 벼슬살이 감회 등 일상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 몇 가지 두드러진 것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 西岳精舍 건립과 배향인물에 대한 논란, 臨淸臺 景賢堂 玉川書院 등의 건립에 대한 의논, 처신에 대한 충고와 격려, 先考礪陰과 관련된 남명 비판과 대응 자세 등인데, 먼저 경주부윤 시절 선물을 보내준데 대한 감사 인사 관련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 膳物 관련 서한과 그 내용

- 3-1322(1561) : 魚物과 외(瓜) 선물 보내준데 감사함
- 3-1337(1561) : 지난 선물과 이번 평(雉) 선물에 감사함
- 3-1344(1561) : 野味를 보내준데 감사함.
- 3-1346(1561) : 멀리서 보내준 선물 잘 받았고 감사함
- 3-1347(1561) : 進上品의 여유분을 보내주어 감사함
- 3-1348(1561) : 魚物 보내주어 감사함
- 3-1350(1561) : 좋은 선물을 받아서 깊이 감사드림
- 3-1350(1561) : 선물을 사양하지 못하여 받고 감사함
- 3-1351(1561) : 술과 과일을 보내주어 감사함
- 3-1354(1561) : 鰻魚선물. 매번 이렇게 받아 부끄러움
- 3-1517(1562) : 鯖魚 선물 잘 받았고 감사함(보충)
- 3-1522(1562) : 魚物 선물, 감사하고 부끄러움(보충)
- 3-1524(1562) : 銀脣(銀魚)를 보내준데 감사함
- 3-1526(1562) : 관직 교체기의 새해 선물 감사 미안

- 3-1536(1562) : 음식을 매번 멀리 보내주어 감사함
- 3-1540(1562) : 魚物 도롱이 차조 누룩 등 선물 감사
- 3-1546(1562) : 생계 걱정해서 보낸 물건 잘 받았음
- 3-1549(1562) : 술과 어물을 멀리 보내주어 감사함

구암은 1560년 9월 경주부윤에 부임하여 1562년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 이 때 구암은 퇴계와 약 50여 통의 서한을 주고받았는데, 그 중 18통에서 위와 같이 감사의 인사를 따로 표할 정도로 선물을 함께 보냈다. 선물 내용은 대단히 다양하였다. 서울에 보낼 진상품의 여분을 나누어 준 것은 물론이고, 복어 청어 은어와 같은 각종 魚物, 술 과일 곡물 꿩고기 도롱이 차조 누룩 등 온갖 생필품이 두루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서한에서만 대략 1개월에 1회 정도 이런 선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빈번한 선물의 송부는 구암이 학문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생계의 측면에서도 퇴계에게 중요한 후원자였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 가장 공을 들인 일이 西岳精舍의 건립 문제였다. 이 일은 처음에 경주의 대표적 인물인 金春秋와 金庾信의 무덤이 황폐화된 것을 개탄하여 이를 정비하고 작은 사당을 세워 제사를 모시고자 한 것인데, 일을 시작하자 못된 소문이 난무하였다. “제왕의 사당을 일개 지방관이 함부로 지으려 한다.” “100칸의 화려한 절을 지어 제사를 지내려 한다.”는 등이 그런 것이며, 배향할 인물과 제사의 주관자 및 精舍의 용도 등에 대해서도 온갖 이견이 분분하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자 구암은 왕복서한을 통해 이주 세세한 문제까지 퇴계와 의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서한에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西岳精舍 관련 서한과 그 내용

- 3-1323(1561) : 西岳精舍 창건 物議 염려, 바람직한 대안 제시

- 3-1337(1561) : 西岳精舍의 명칭과 그 곳에 모실 인물 문제 협의
- 3-1506(1562) : 西岳精舍 관련(?) 비방 상황에 대한 걱정과 격려
- 3-1508(1562) : 別紙. 비방 상황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법
- 3-1509(1562) : 西岳精舍의 명칭 규모 등에 대한 질의와 자문
- 3-1537(1562) : 西岳精舍의 三賢合祀 문제점 거론, 폐지 권유
- 3-1538(1562) : 西岳精舍의 三賢合祀 폐지 청송. 명칭 문제 자문
- 3-1548(1562) : 西岳精舍의 각종 이름 다 좋다. 편액 써 보내겠음.
- 3-1540(1562) : 西岳精舍의 여러 扁額을 아직 못 썼다.
- 3-1542(1562) : 西岳精舍의 扁額 써 보냄. 크기 정확성 판각 등 언급
- 3-1674(1563) : 西岳精舍에 모실 인물 논란(김유신 포함 여부 이견)

그리고 순천부사로 있을 때는 무오사화 당시 순천에서 유배생활을 한 金宏弼과 曹偉의 유허지였던 臨淸臺를 복원하여 비를 세우고, 그 옆에 김굉필을 배향하기 위한 景賢堂(1564년)과 玉川精舍(1566년)를 세우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는데, 이때도 역시 「臨淸臺記」의 저자 시비와 원만한 처리 방법, 기문 오탈자의 교감과 판각 시 유의사항, 경현당과 옥천정사의 건물 명칭과 편액 書寫 등의 문제를 모두 퇴계와 왕복서한을 통해 긴밀하게 의논하였다.

• 臨淸臺 등 관련 서한과 그 내용

- 3-1853(1564) : 臨淸臺記 소장본 보냄. 오탈자 작자 문제 제기
- 3-1863(1564) : 臨淸臺記 校訂 질의. 堂名(景行) 자문. 扁額 미완성
- 3-1856(1564) : 臨淸臺記 판각 시 유의 사항. 校訂 사항 설명
- 3-1857(1564) : 別紙. 臨淸臺記 교정 견해. 원만한 처리 방법 제안  
景賢堂 壯節亭 扁額은 다음에 써 보내겠음
- 4-2200(1565) : 景賢錄 교감 편집 의견. 전에 받은 경현록 돌려줌
- 4-2204(1565) : 金宏弼行蹟은 鄭崑壽 草本 받아 교감 예정
- 4-2205(1565) : 玉川精舍 각 명칭 자문. 편액은 추후 써 보내겠음
- 4-2203(1565) : 玉川書院 편액 써 보냄.

구암은 이처럼 지방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도 그것이 선현을 존중하고 유적을 복원하는 중요한 문제일 경우, 특히 후손이나 지역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퇴계와 왕복서한을 통해 의논하였다. 서악정사나 임청대 관련 서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주고받은 서한의 빈도수와 상세한 내용을 통해 두 분이 서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한은 공적인 사안은 물론 이주 민감한 개인의 처신 문제나 갈등에 있어서도 서로 못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친밀하였음을 보여준다.

① 處身에 대한 충고와 격려

- 2-0301(1553) : 술과 관련한 후회의 말을 듣고 飲酒 경계
- 3-1149(1560) : 別紙. 술 실수한 예를 거론하며 飲酒 경계
- 3-1506(1562) : 비방 받음에 대한 격려와 처신 방법 충고
- 3-1538(1562) : 安東府使 權應挺과 怨恨 맺지 않게 충고
- 3-1540(1562) : 安東府使와 오해 풀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3-1673(1563) : 慶州府使 시절 비난에 개의치 말라고 위로
- 3-1678(1563) : 관직(刑曹參議) 사양에 대한 구설수 염려
- 3-1850(1564) : 조정 소식 듣고 학자의 굳건한 자세 강조
- 5-3512(1569) : 晉州獄事 소문 듣고 안타까운 마음 표현
- 5-3826(1570) : 晉州獄事에 남명 측 비판. 대처 방안 제안

② 先考碣陰 관련 비판과 대응

- 3-1305(1561) : 先考碣陰(南冥撰) 書寫 허락. 종이 요청
- 3-1350(1561) : 先考碣陰 書寫 허락. 수정 요청은 거절
- 3-1317(1561) : 先考碣陰 문제(好奇自用) 조목조목 비판
- 3-1339(1561) : 先考碣陰 비판에 대한 南冥 반응 물음
- 3-1509(1562) : 南冥의 퇴계 비판(欺世盜名)에 대한 소감
- 3-1517(1562) : 南冥의 퇴계 비판에 대한 대응 자세 거론

①은 구암의 술 마시는 버릇, 안동부사와의 갈등 상황, 서약정사 건립과 관련된 조야의 비방, 관직의 진퇴 문제에서 비롯된 조정의 구설수, 진주옥사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적극 위로하고 격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처신에 더욱 조심하기를 진솔하게 충고한 내용들이다. ②는 남명이 쓴 구암의 선친 李湛의 礪陰에 대하여 처음에는 검토를 사양하다가 마침내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남명의 반응을 물어본 것인데,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준엄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암은 결국 퇴계의 비판에 따라 남명의 글을 수정하여 새겼다.

퇴계와 구암의 왕복서한은 이상과 같이 서적에 대한 정보 교환과 간행 문제의 협의, 간행 대상 서적을 중심으로 한 질의와 답변, 공적 업무 처리나 사적 처신 문제와 관련한 각종 자문과 충고 등 세 가지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암의 학문적 관심사와 주자학 보급에 남긴 공로, 개인적 고민이나 퇴계와의 남다른 관계 등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었다. 왕복서한의 일차적 가치는 바로 이처럼 소략한 문집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사실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앞에서 본고는 퇴계와 구암이 주고받은 왕복서한의 실상과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결과 두 분이 본격적으로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퇴계가 성균관대사성으로 근무하고 구암은 청주목사로 부임한 명종 8년(1553)부터 퇴계가 세상을 떠난 선조 3년(1570)까지 약 18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한은 전체가 140여 통으로, 수많은 퇴계문인 가

운데 鄭惟一(168통) 趙穆(156통)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었으며, 구암이 지방 관으로 근무할 때 답장 형태로 보낸 것이 대부분이란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구암이 퇴계에게 보낸 서한은 이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았을 듯한데, 3차례에 걸친 문집 편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으며, 현존 문집에 수록된 자료도 대부분 『퇴계집』에 수록된 것을 부분적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퇴계의 서한을 중심으로 왕복서한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주자학 관련 서적에 대한 정보 교환과 간행 문제의 협의였다. 구암은 퇴계를 통해 필요한 많은 책을 빌려볼 수 있었고, 간행 대상으로 삼은 서적의 善本校勘 跋文 등을 두루 획득할 수 있었으며, 편집과 배포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왕복서한의 절반가량인 약 70통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퇴계 역시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서적을 많이 얻어 볼 수 있었으며, 자신의 학문을 정확하게 가다듬어 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학문탐색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었다. 두 분 사이의 학문적 질의응답은 주로 『朱書』를 비롯한 주자학 관련 서적, 특히 구암이 간행 대상으로 삼은 몇몇 주요 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이 대부분 특정 서적의 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구풀이, 문맥설명, 내용해석 등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구암의 학문이 관념적 이론보다 실증적 해석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문답 결과를 자신의 서적 간행에 바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론할만한 내용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 주요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 개인의 처신 문제에 대한 격려와 충고 등이었다. 이 가운데 빈번한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구암이 학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계 측면에 있어서도 퇴계의 든든한 후원자였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업무처리에 대한 친절한 자문이나 처신 문제에 대한 곡진한 충고 등은 두 분이 인간적으로 못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구암은 퇴계 문하의 다른 어떤 문인보다 퇴계와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음이 분명한 듯하였다. 퇴계의 말년 18년 동안 학문을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지식정보를 제공하였고, 퇴계와 협력하여 주자학적 이상을 현실에 실천하는데 요긴한 책들을 적극 보급하였으며, 경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도 퇴계를 후원하고 신뢰한 든든한 助力者였기 때문이다. 퇴계 후손 李晚燾가 그를 孔門四科의 인물에 비유한 것<sup>50)</sup>이나, 李種杞가 그를 공자 문하의 子路에 비유하면서 ‘나이는 자로와 공자의 차이 정도지만 독실하게 믿고 깊이 깨우침은 더 뛰어나다’<sup>51)</sup>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일 터이다.

50) 李晚燾, 「龜巖先生別集序」, “惟我先君退陶夫子門下 有如龜巖李先生 其德行文學 優入四科之列者”

51) 李種杞, 「龜巖先生文集重刊跋」, “龜巖李先生 奮起南地 一躍而從之 北方之學者 莫之或先也 蓋較其年紀 如子路之於夫子 而無慚無迂 篤信而深喻之 則殆過之矣”

## 【참고문헌】

- 李 楨, 『龜巖集』, 韓國文集總刊 33책, 민족문화추진회.
- 權五鳳, 『退溪書集成』, 1-5책, 포항공과대학교, 1996.
- 姜求律, 「龜巖 李楨의 生涯와 詩世界의 一端」, 『龜巖 李楨 思想의 多面的 理解』, 사천문화원, 2004.
- 姜攻求, 「龜巖 李楨과 泗川·晉州地域의 退溪學脈」, 『退溪學과 韓國文化』31,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2.
- 金相來, 「龜巖 李楨의 教育思想」, 『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5.
- 薛錫圭, 「嶺南士林의 分化와 龜巖 李楨의 役割」, 『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5.
- 申炳周, 「龜巖集解題」, 『南冥學研究』 10, 2000.
- 李相弼, 「龜巖 李楨의 學問 標의-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2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 李世東, 「龜巖 李楨의 中庸學」,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 李樹健, 「龜巖 李楨의 生涯와 學問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5.
- 李銀植, 「龜巖과 晉州獄事」, 『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5.
- 李中喆,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1994.
- 鄭景柱, 「龜巖 李楨의 師友와 學問淵源」, 『사천을 빛낸 문화인물 학술세미나』, 사천문화원, 2006.
- 鄭萬祚, 「宣祖初 晉州淫婦獄과 그 波紋」, 『韓國學論叢』 2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0.
- 鄭炳浩, 「龜巖 李楨의 愛民詩에 대하여」, 『東洋禮學』 18집, 2008, 227~243면.
- 鄭羽洛, 「中庸이 龜巖 李楨의 文學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집, 동방한문학회, 2003.
- 崔英成, 「龜巖 李楨의 學問과 儒學史上的의 貢獻」, 『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5.



## Abstract

## The Exchanged Letters between Toigye(退溪) and Guam(龜巖)

Hwang, Wee-Zoo

This paper examined the exchanged letters between Toigye and Guam. There were around 140 letters from Toigye and it is expected that Guam had sent much more letters to Toigye yet than Toigye had. The most important content from these letters was the discussion about publishing and spreading the books relating the theory of Chu-Tzu. Guam directly reflected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to publish his books and Toigye also gained a lot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hroughout the discussion. The second important content wa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ways to pursue the studies. The main topic was focused on explaining words, phrases and context, and analyzing the content of Neo-Confucianism instead of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This explains that Guam's study mainly pursued the actual analysis and its practicality of Neo-Confucianis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It was especially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last contents to talk are the appreciation of present, discussion of managing work, the subject of personal behaviors and etcetera. Out of these, the appreciations of presents reveal that Guam was a strong supporter of Toigye's economic life and the advices for each other's behavior proved that they were especially close friends.

## Key Word

Toigye(退溪), Guam(龜巖), letters(書翰), Chu-Tzu theory(朱子學), study(學問), questions and answers(問答), books(書籍)

▪ 논문투고일 : 2010.6.30. 심사시작일 : 2010.7.17. 심사완료일 : 2010.7.29.